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김기순* · 신지철** · 이기학*** · 배소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척각학부)

김기순 · 신지철 · 이기학 · 배소영.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언어척각장애 연구』, 2007, 제12권, 제1호, 1-15.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을 살펴보았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4~6세 일반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검사 도구는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이야기문법 총점,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를 산출하여 연령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및 결론:** 이야기문법 총점,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야기문법과 평균절길이(MLC)로 학령전기 아동의 이야기 회상 능력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 평가시 이야기문법과 평균절길이(MLC)로 분석하는 것이 이야기 발달을 보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이야기, 학령전기 아동, 회상 산출, 이야기문법, 평균절길이(MLC)

I. 서론

언어장애를 진단할 때 낱말이나 문장 수준의 이해 및 산출뿐 아니라 문장 이상의 상위 단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평가시 이야기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Strong, 1988). 또한 이야기 과제는 기본적인 문법 표현뿐 아니라 아동의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 수 있는 민감한 평가 도구이며, 이야기 산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배소영 · 이승환, 1996; Liles, 1993). 따라서 이야기 평가는 인지적, 사회적, 언어적 발달의 지표를 제시해줄 수 있다. Bishop & Edmundson (1987)은 언어장애 아동 87명을 종단 연구한 결과, 이야기 회상 능력이 아동의 언어적인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하였고, Paul & Smith (1993)는 2세에 표현언어 발달지체로 진단받은 아동들을 종단 연구한 결과, 이야기 능력 평가에서 낮은 수행을 나타낸 표현언어 발달지체 아동들은 학령전까지 발달이 지체되었고, 이야기 능력이 학업 수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업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 과제는 읽기, 쓰기와 관련된 학령기 학업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한다(Feagans & Applebaum, 1986). 특히,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는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읽기 및 쓰기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

구이다(Morrow, 1990; Ripich & Griffith, 1988).

아동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아동의 이야기 발달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소영(2002)은 4세 이전 아동들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주요 낱말들을 산출할 수 있지만, 이 낱말들을 이야기로 연결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며, 이야기와 관련없는 자신의 경험을 길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4세가 되면 비로소 이야기구조나 언어구조에서 급진전을 나타내는데, 이야기 구조면에서는 이야기문법의 기본구조가 성립되고, 언어 구조면에서는 연결어미의 사용이 보다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포함하는 인과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문법 구조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명사를 나열하거나 생략이 심한 경우가 많고, 부분적인 기술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5세 아동은 사건이 포함된 이야기의 기본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야기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용어를 많이 쓰거나, 비슷한 주제로 대치하고, 도입과 결말 부분만을 제대로 묘사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6세가 되면 복잡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연결어미 및 접속부사의 표현도 다양하고 정확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이야기 산출은 4세에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고, 5~6세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 아동의 언어발달은 언어장애 아동의 진단 평가 및 치료 교육에서 유용하게 쓰인다(Fey, 1986; Lund & Duchan, 1993). 배소영(2002)은 정상 언어발달에서 얻은 정보는 언어발달장애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언어의 특정 하위영역에서의 각 아동의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개인간 및 개인내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자세한 파악은 치료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연령에 따른 이야기 발달의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연령에 따른 양적인 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준거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의 특성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들과 비교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이야기 평가시 준거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이야기 발달 연구는 아직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배소영·이승환(1996)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이용하여 정상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의 이야기 산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유정·배소영, 2004; 배소영, 2002). 또한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는 정상 아동들 뿐 아니라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임상에서 평가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상 아동들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해석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이용되어 온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이야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4세부터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6세까지의 학령전기 일반 아동들의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문법과 평균절길이를 통해 4, 5, 6세 아동의 이야기 회상산출 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지를 보았다.

II.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학령전기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0~4;11 아동 20명, 5;0~5;11 아동 20명, 6;0~6;11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비율은 1:1이었다. 각 아동은 (1) 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달 장애, 정서 장애, 행동장애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2)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김영태, 2000)의 표현언어 검사 실시 결과,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통합언어연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지체되고, (3) 구문의미이해력 검사결과, -1 SD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검사 도구

아동에게 이야기 회상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배소영 · 이승환(1996)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그네 이야기’는 두 개의 일화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대등적으로 연결된 시간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로 총 7개의 C-unit으로 구성되었다. 인과적 연결 관계의 이야기인 ‘공 이야기’는 두 개의 일화로 총 9개의 C-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이야기는 이야기 Stein & Glenn (1979)의 여섯 가지 이야기문법 범주 중 다섯 가지인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부록-1>, <부록-2>.

나. 자료 수집

기초검사인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김영태, 2000)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를 통해 선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 실시후 1주일 이내에 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의 절차는 검사자가 첫번째 이야기인 ‘그네 이야기’의 그림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카드를 치운 후 아동이 회상 산출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이야기인 ‘공 이야기’도 ‘그네 이야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야기는 녹음을 해서 들려주었을 때, 아동이 지루해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동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검사자가 직접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Stein & Glenn, 1979).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억양을 이용하여 들려주었으며, 들려준 이야기의 평균 속도는 ‘그네 이야기’가 35초, ‘공 이야기’가 42초였다.

다. 자료 분석

(1) 이야기문법에 관한 분석

본 연구는 회상연구이므로 들려준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분석하였다. Stein & Glenn (1979)의 이야기문법 분류(배경, 계기 사건, 내적반응, 시도, 결과)를 따랐다. 이야기문법 총점은 Strong (1998)의 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SNAP)에서와 같이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들이 등장할 때마다 1점을 부여하였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을 때 또는 앞선 발화와 주어가 동일하여 생략된 경우 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1점을 부여하였다.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생략했거나, 문장을 끝맺음하지 못한 경우 불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부록 - 3>. '그네 이야기'는 9개의 이야기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공 이야기'는 11개의 이야기문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0점이었다.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에 관한 분석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에 대해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ean Length of C-units by words: MLC-w, 이하 MLC-w)를 분석하였다. MLC-w는 각 이야기에서 나타난 낱말 수의 합을 총 C-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부록 - 4>. 낱말의 구분은 김영태(2000)의 구분 원칙을 따랐다. 주어를 생략했거나 문장 끝맺음을 하지 않아 이야기문법에서 0점 처리한 C-unit도 회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분석에 포함시켰다.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에 관한 분석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에 대해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ean Length of C-units by morphemes: MLC-m, 이하 MLC-m)를 분석하였다. MLC-m는 각 이야기에서 나타난 형태소 수의 합을 총 C-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형태소의 구분은 김영태(2000)의 구분 원칙을 따랐다. 주어를 생략했거나 문장 끝맺음을 하지 않아 이야기문법에서 0점 처리한 C-unit도 회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분석에 포함시켰다.

라. 신뢰도 분석

산출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선택한 후, 언어병리학 전공자이며 언어치료의 경험이 있는 2차 검사자 2명에게 오디오 자료를 재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사 신뢰도는 99%, 분석 신뢰도는 94%였다.

검사자의 검사절차에 대한 신뢰도는 검사자가 대상 아동들에게 얼마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체 자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언어병리학 전공자 3인이 평가하였다. 평가는 4항목에 걸쳐 5점 척도(0, 1, 2, 3, 4)를 사용하였고, 평균점수는 3.67이었다.

마. 통계 분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연령에 따른 이야기문법 점수의 평균 차이와 평균절길이(MLC)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 미만으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이야기문법

가. 이야기문법 총점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문법 총점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F_{(2, 39)} = 24.17, p = .000 < \text{표 - 1}>$).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5세, 6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 연령에 따른 이야기문법 총점

집단	4세 †	5세 †	6세 †
이야기문법 총점	5.50 ± 3.47	9.55 ± 3.47	12.90 ± 3.47

† 평균 ± 표준편차

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

‘그네 이야기’와 ‘공 이야기’의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배경, 계기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2>. 세 집단의 이야기문법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그네 이야기’의 내적 반응을 제외하고 모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 2>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와 사후검정 결과

		4세†	5세†	6세†	p - value
배경	그네이야기	0.40 ± 0.42 ^a	0.73 ± 0.73 ^b	0.88 ± 0.88 ^b	0.000
	공이야기	0.45 ± 0.51 ^a	0.95 ± 0.22 ^b	1.00 ± 0.00 ^b	0.000
계기 사건	그네이야기	0.55 ± 0.51 ^a	0.70 ± 0.47 ^{ab}	0.95 ± 0.22 ^b	0.014
	공이야기	0.31 ± 0.22 ^a	0.46 ± 0.25 ^{ab}	0.62 ± 0.22 ^b	0.000
내적 반응	그네이야기	0.08 ± 0.18 ^a	0.25 ± 0.34 ^a	0.28 ± 0.38 ^a	0.099
	공이야기	0.05 ± 0.15 ^a	0.15 ± 0.24 ^a	0.50 ± 0.36 ^b	0.000
시도	그네이야기	0.38 ± 0.39 ^a	0.65 ± 0.40 ^b	0.65 ± 0.40 ^b	0.042
	공이야기	0.13 ± 0.22 ^a	0.33 ± 0.29 ^{ab}	0.45 ± 0.32 ^b	0.002
결과	그네이야기	0.48 ± 0.38 ^a	0.60 ± 0.41 ^{ab}	0.85 ± 0.24 ^b	0.005
	공이야기	0.24 ± 0.31 ^a	0.37 ± 0.40 ^a	0.67 ± 0.30 ^b	0.001

a, b: 같은 문자는 통계적으로 같은 집단을 의미함

† 평균 ± 표준편차

2.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MLC-w를 알아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표 - 3>. 세 집단의 MLC-w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MLC-w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세 집단과 5세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 3> 연령에 따라 낱말로 본 평균절길이(MLC-w)

집단	4세†	5세†	6세†
MLC-w	9.02 ± 1.94	10.25 ± 1.94	12.29 ± 1.94

† 평균 ± 표준편차

3.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4, 5, 6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MLC-m를 알아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표 - 4>. 세 집단의 MLC-m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MLC-m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한 결과,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5세 집단은 6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연령에 따른 형태소로 본 평균절길이(MLC-m)

집단	4세†	5세†	6세†
MLC-m	15.05 ± 2.07	16.96 ± 2.05	19.03 ± 2.70

† 평균 ± 표준편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의 요약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문법 총점을 알아본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집단은 5세 집단과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5세 집단은 6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야기문법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문법 하위 범주별 회상 점수에서 내적반응을 제외한 결과, 배경, 계기 사건, 시도, 결과가 모두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이야기 평가도구 개발시 회상산출로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이 임상적인 의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상산출을 통해 이야기문법으로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발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둘째, MLC-w를 알아본 결과, 4세는 9.02, 5세는 10.2, 6세는 12.29로 4세와 5세 집단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4세와 5세 집단은 6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MLC-w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MLC-w가 연령에 따른 발달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또 다른 척도인 평균발화길이는 아동의 발화 내용을 언어적 길이로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이다. 그러나, 평균발화길이는 초기 언어발달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표현언어 발달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그 상관 연령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김영태, 1997). Brown (1973)은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 4.0단계까지, Miller & Chapman (1981)와 Rondal (1978)은 4세까지 평균발화길이를 생활연령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관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소 변화가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LC-w가 4세 이후의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어 평균발화길이보다 연령에 따른 발달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세 이후의 아동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과제가 필수적이며, MLC-w를 통해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MLC-m를 알아본 결과, 4세, 5세, 6세 집단이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MLC-w는 4세, 5세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MLC-m는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어 언어적 길이를 평가하는 더 민감한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4세, 5세, 6세 아동의 표현 언어를 평가시 MLC를 산출할 때, 낱말보다는 조사와 어미를 포함하는 MLC-m를 산출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발달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야기문법과 MLC로 학령 전기 아동의 이야기 회상 능력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 평가 척도로 이야기문법과 MLC가 적절하고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야기문법과 MLC가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연령에 따른 이야기 능력 발달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지에 대한 연구와 이야기 과제에서 정상 아동들의 실수 경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이야기 검사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2, 5-26.
- 김영태(2000).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유정 · 배소영(2004).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41-58.
- 배소영 · 임선숙 · 이지희 · 장혜성(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배소영 · 이승환(1996).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 34-67.
- 배소영(2002). 한국어 발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겨울연수회: 아동언어장애』.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Bishop, D. V. M., & Edmundson, A. (1987). Language impaired four year olds: Distinguishing transient from persistent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156-173.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eagans, L., & Applebaum, M. L. (1986). Validation of language subtypes in learning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358-364.
- Fey, M. (1986).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San Diego, CA: College-Hill Press.
- Liles, Z. B. (1993). Narrative discourse in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and children with normal languag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868-882.
- Lund, N. J., & Duchan, J. F. (1993).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in naturalistic contex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iller, J. F., & Chapman, R. S. (1981).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154-161.
- Morrow, L. M. (1990).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ul, R., & Smith, R. L. (1993). Narrative skills in 4-year-olds with normal, impaired, and late-developing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592-598.
- Ripich, D. N., & Griffith, P. L. (1988). Narr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n-

- disabled children: Story structure, cohesion, and proposition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 165-173.
- Rondal, J. A. (1978). Maternal speech to normal and Down's syndrome children matched for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 Meyers (Ed.), *Quality of life in severely and profoundly mentally retarded people: Research foundation for improvemen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Stein, N. L., & Glenn, C. (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New York, NY: Ablex.
- Strong, C. J. (1988). *The 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Eau Claire, WI: Thinking Publications.

<부록 - 1> 그네 이야기 - 회상용

C-unit	내용	이야기문법
1	민이랑 민이엄마랑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배경
2	그런데 민이는 텔레비전이 재미없어졌어요.	계기 사건
3	민이는 그네가 타고 싶었어요.	내적 반응
4	그래서 밖으로 나가 그네를 탔어요.	시도/결과
5	철이가 놀이터에 놀러왔어요.	배경
6	철이도 그네가 타고 싶어서/민이에게 같이 타자고 했어요.	내적 반응/시도
7	그래서 민이와 철이는 재미있게 그네를 탔어요.	결과

<부록 - 2> 공 이야기 - 회상용

C-unit	내용	이야기문법
1	순이랑 돌이가 길거리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배경
2	그런데 순이가 공을 차도 쪽으로 던졌어요.	계기 사건
3	그때 자전거 탄 어떤 아저씨가 돌이쪽으로 왔어요.	계기 사건
4	돌이는 공을 받으려고 차도로 나갔어요.	내적 반응/시도
5	그러다 돌이는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졌어요.	결과
6	그래서 돌이 다리에 피가 났어요.	결과/계기 사건
7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내적 반응
8	그리고 철이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시도
9	아저씨는 철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결과

<부록 - 3> 이야기문법 채점 기준

1.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을 때 또는 앞선 발화와 주어가 동일하여 생략된 경우에는 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한다.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생략했거나, 문장을 끝맺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아동이 회상한 내용은 원래 이야기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이 첨가한 내용이나 들려준 내용과 다를 경우, 분석에서 제외한다.
예: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갔어요)
예: 철이도 그네를 같이 타자고 했어요 (순이도 같이 타자고 했어요)
※ ()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3. 이야기문법 범주는 들려준 이야기에 근거한다. 아동이 회상 산출한 이야기 내에서 다시 이야기문법을 구분하지 않고, 원래 이야기에서의 이야기문법에 따라 해석한다.
4. 원래 이야기에서는 하나의 C-unit이었는데, 아동의 두 개 이상의 C-unit으로 더 자세히 표현한 경우 이야기문법 점수를 1점 부여한다. 반면, 들려준 이야기에서 두 개의 C-unit을 아동이 하나의 C-unit으로 표현하지만, 두 개의 이야기문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2점을 부여한다.
5. ‘그네 이야기’ 중 ‘그래서 민이와 철이는 재미있게 그네를 탔어요’에서 주인공 두 명이 같이 탔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민이와 철이’, ‘같이’, ‘둘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야기문법이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평균절길이 분석에는 포함시킨다.
6. 서술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 엄마랑 민이랑 텔레비전
철이랑 자전거랑 쿵
7. 낱말 찾기 오류가 있을 경우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 그네를 탔어요 → 시소를 탔어요
8. 구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문법 점수를 부여한다.

<부록 - 4> C-unit 구분 및 평균절길이 채점 기준

1. C-unit (Communication unit)은 하나의 의사소통 단위로서 주절 즉,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기본 단위이며, 주절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안긴 문장 즉,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대등적(나열 및 대조)으로 연결된 주절 문장은 두 개의 C-unit으로 구분한다.
예: 엄마랑 순이랑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텔레비전이 재미없었어요 - 2개
민이는 텔레비전이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 1개
2. 연결어미 '~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종속절로 간주하여 1개의 C-unit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순차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2개의 C-unit으로 나눈다.
예: 철이가 넘어져서/피가 났어요 - 2개
놀이터에 나가서 그녀를 탔어요 - 1개
3. 2초 이상의 휴지(pause)가 나타나면 2개의 C-unit으로 나눈다.
예: 철이가 넘어져서(휴지)/피가 났어요 - 2개
4. 등장인물을 '남자 친구', '여자 아이', '순이 친구', '어떤 아이' 와 같이 표현한 경우도 인정하며, 1개의 형태소로 간주한다.
5. 의성어, 의태어도 내용이 적절하면 1개의 낱말 및 형태소로 포함시킨다.
예: 찌르릉찌르릉, 콧당
6. 형태소 오류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7. 간투사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예: 아저씨가 (자꾸) 자전거 탔대요/넘어졌어요(자꾸)/피났어요(자꾸)/(자꾸) 병원에 갔어요
8. '~다가'로 연결되는 발화는 2개의 C-unit으로 구분한다.
예: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다가/남자 아이가 부딪쳤어요 - 2개
순이가 공놀이를 하다가/차도에 공을 던져가지고 - 2개
9. 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 들려준 이야기 정보에 더 가까운 것을 분석한다.
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자전거에 부딪쳤어요) 철이가 자전거에 부딪쳐서 다쳤어요.

10. 이야기문법에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C-unit도 회상한 내용이 적절하면 평균절길이 분석에 포함한다.

예: 민이랑 엄마랑 텔레비전
(주어 생략) 넘어졌어요

ABSTRACT

Age-Dependent Story Retelling Abilities in Preschoolers

Kisoon Kim^a, Jicheol Shin^{b,*}, Ki Hak Lee^c, Soyeong Pae^d

^a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story retelling abilities of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60 preschoolers aged 4 to 6 years. Two Korean stories written by Soyeong Pae, "The Swing Story" and "The Ball Story" were used. We showed the story cards to the children, told a story corresponding to the cards, and asked the children to retell the story after removing the cards. The total scores of story grammar, MLC-w (Mean Length of C-units by words), and MLC-m (Mean Length of C-units by morphemes) were compared to determine differences in story retelling performance according to age. **Results & Conclusion:** The total scores for story grammar, MLC-w, and MLC-m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ge. The use of story grammar and MLC are considered effective measure of children's story intelligibility.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1-15)

Key Words: preschooler, story retelling, story grammar, Mean Length of C-units (MLC)

References

- Bishop, D. V. M., & Edmundson, A. (1987). Language impaired four year olds: Distinguishing transient from persistent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156-173.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eagans, L., & Applebaum, M. L. (1986). Validation of language subtypes in learning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358-364.
- Fey, M. (1986). *Language intervention with young children*. San Diego, CA: College-Hill Press.
- Kim, Y. T. (1997). Foundation of length of utterance in 2 to 4 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Received January 18, 2007; final revision received March 12, 2007; accepted March 15, 2007.

* Correspondence to Jicheol Shin,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mail: jcsevrn@yumc.yonsei.ac.kr, tel.: +82 2 2228 3705

© 2007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of *Communication Disorders*, 2, 5-26.
- Kim, Y. T. (2000).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Kim, Y. J., & Pae, S. (2004). Narrative abilitie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 41-58.
- Liles, Z. B. (1993). Narrative discourse in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and children with normal languag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868-882.
- Lund, N. J., & Duchan, J. F. (1993).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in naturalistic contex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iller, J. F., & Chapman, R. S. (1981).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154-161.
- Morrow, L. M. (1990).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e, S. (2002).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ceedings of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KASA) Winter Workshop.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e, S., & Lee, S. H. (1996). Story generation of Korean chil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 34-67.
- Pae, S., Lim, S. S., Lee J. H., & Chang H. S. (2004). *Semantics-Syntax Comprehension Tes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Paul, R., & Smith, R. L. (1993). Narrative skills in 4-year-olds with normal, impaired, and late-developing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592-598.
- Ripich, D. N., & Griffith, P. L. (1988). Narrative abiliti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 Story structure, cohesion, and proposition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 165-173.
- Rondal, J. A. (1978). Maternal speech to normal and Down's syndrome children matched for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 Meyers (Ed.), *Quality of life in severely and profoundly mentally retarded people: Research foundation for improvemen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Stein, N. L., & Glenn, C. (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Freedle (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New York, NY: Ablex.
- Strong, C. J. (1988). *The Strong Narrative Assessment Procedure*. Eau Claire, WI: Thinking Publications.